

도시를 향한 현상학적 시선 - <싯다르타> 연작 이후

글/ 이인범(상명대 조형예술학과 교수)

<도시를 향한 현상학적 시선>. 화가 서용선의 대구 갤러리신라 개인전 화두는 또 다시 '도시'다. 오늘날 거기에 서 살도록 운명지어지다시피 한 '도시 사람들'이다. 화가 서용선이 화업에 들어선 후 한 번도 관심사에서 벗어난 적이 없는 도시 사람들. 데뷔시부터 이 이슈로 연 개인전들만도 여러 차례이다. 그 마지막은 두터운 볼륨으로 열렸던 금호미술관의 <서용선의 도시 그리기 - 유토피즘과 그 현실 사이>(2015. 4. 17 - 5. 17)전이다. 3년 전에 이 전시는 그동안 도시 그리기에서 축적된 내공을 모두 쏟아내는 작업으로 여러 사람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안겼다. 물론 그 동안에도 전시는 작년 대구 봉산문화회관 <생각이 그려지는- 서용선>전(2017. 1. 13 - 4. 9)같이 다른 주제로 여럿 열렸다.

도대체 인간의 삶이란 무엇인가? 알다시피 40여 년에 걸친 그의 예술 생애는 이러한 질문의 연속이었다. 그 가운데 자리는 지금 이 시대에 도시를 서식지로 삼아 살아가는 익명의 사람 그리기가 차지하고 있다. 역사화도 풍경화도 즐겨 그렸다. 그런데 그것들도 삶의 역사이자 삶 풍경이라는 점에선 다를 게 없다. 단종, 안평대군, 김시습 같은 역사적 인물들에서 동학란이나 제2차 세계대전, 한국전쟁 같은 거대 서사에 등장하는 사람들까지, 소나무나 지리산 풍경들, 그리고 나날의 일과 같이 그려 온 자화상들 같은 지극히 사적인 정서와 연관된 주제의 그림들조차도 초지일관 그의 예술은 지금 여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그렇지만 미궁에 찬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향한 질문의 흔적 아닌 것이 없다.

I.

물론 이번 개인전 출품작들은 크고 작은 작품 30여 점으로 구성된다. 그 중 몇 점을 빼고는 대부분이 최근에 그려진 것들이다. 그동안에도 서용선은 붓과 캔버스를 들고 파리, 뉴욕 소호와 뉴저지, 워싱턴, 토론토 등 술한 도시들을 오갔다. 이번 전시의 중심은 지난해 말부터 올 초에 걸쳐 미국 워싱턴 DC 인근 알렉산드리아에서 그린 카페나 거리 풍경들, 시내버스 안의 사람들 그림들이다. 여기에 파리, 뉴욕 지하철, 뉴저지 거리나 부산 풍경 한두 점씩이 덧붙여졌다. 일찍이 착수되어 최근에 마무리한 베이징, 멜버른, 베를린 풍경도 섞여 있다. 지난 번 도시 사람들 전시 기억이 여전히 선명하데, 그가 다시 바라보는 도시 사람들은 어떤 모습일까? 평생사업인 그의 인간 탐구는 이제 어디쯤에 이르렀을까?

알렉산드리아의 익명의 사람들과 거리 풍경들부터 살펴보자. 어디론가 버스를 타고 이동하는 사람들, 카페에서 신문을 보거나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들, 무언가 혹은 누군가를 기다리며 서있는 거리의 사람들... 그런데 이번 갤러리신라 출품작들에서 그의 눈길이 단지 도시 사람들의 일상에 관한 정서적인 표출로 향하는 것 같지는 않다. 오히려 그가 그린 것들은 대상들에 대한 정서적 반응이 아니라 그들과 화가 자신 사이에 벌어진 모종의 인식론적인 거리감으로 읽혀지기도 한다. 무엇보다도 일련의 <Dash Bus> 시리즈 작품들이 그렇다. 내용적으로 그것들은 그저 평범하기 그지없는 버스 안 풍경들이다. 하지만, 그들을 마주하는 화가의 감각적 대응들에서 이전과 뭔가 차이를 드러낸다. 예전같이 강렬한 색채와 붓자국으로 차 안의 사람들이나 이러 저러한 기물들에 표현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도시의 일상 속을 살아가는 인물들이나 거기에 놓여진 사물들을 구획짓고 관계짓는 직선과 곡선들로 경계짓는 듯하다. 붓자국이 전혀 닿지 않은 캔버스 천들의 여백들도 두드러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상을 에워싸고 있는 숫자, 문자, 기호들 그리고 그 속의 삶을 조건지우는 미시적 힘들이 그물망 같은 각종 정보들을 포착하는 데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그냥 그렇고 그런 일상적인 거리 풍경인 <King St. Alexandria> 연작들 역시 절제된 감정으로 도시의 일상을 가로지르는 그러한 삶의 조건들을 그리고 있다. 그런 데에 비해, <Five Guys>, <Old Town, Alexandria> 같은 작품들은 아예 도시적 삶을 지질학적 깊이로 파고드는 듯하다. 생활세계에 넘쳐나는 사소한 이미지나 문자 정보들에서 그는 역사를 탐독한다. 뿐만 아니라 사회학적이고 정신분석학적 시선으로 도시적 삶을 채집하여 드로잉하거나 콜라주하고 있다. 마치 그 안에 꿈틀거리는 욕망들이나 문화적 기억들을 이끌어내기라도 할 듯이 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미연방 수도인 워싱턴 DC. 연방정부DHK 펜타곤, 해군기지 같은 세계의 권력 중심을 구성해내는 막강한 장치들이 징후적으로 읽혀지는 것은 왜일까? 일상에 얹히고설킨 힘의 미시선(微視線)들이

보통 사람들에게 작동되는 이 세계를 틀지우는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속명으로 다가오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그런데 이번 서용선의 작업들은 단지 부평초같이 도시에 얹혀 살아가는 사람들의 불안이나 공포 같은 것을 향해 있는 것 같지 않다는 사실은 흥미롭다. 늘 그의 화면이 뿔어내던 강렬한 색채나 정서적 긴장, 혹은 우리를 걱정으로 내 몰곤 하던 표출적인 붓질들도 한 걸음 뒤로 물러선 듯하다. 거대한 빌딩들로 풍경이 뒤 바뀌다시피 한 부산 광양만에서 그가 그린 <해운대 센텀 Premier Hotel> 같은 작품에선 압도적인 크기로 도시 공간의 피할 수 없는 물적 토대로 압한다. 그리고 그것이 불러일으키는 송고미로 차라리 우리를 도시적 삶에 대한 묵상으로 인도하는 듯하다.

무엇보다도 이번 전시에서 눈길을 끄는 것은 화가로선 그리 익숙할 리 없는 몇 점의 사진 작업들이 포함되었다는 점이다. 예컨대, <직립 연출사진> 연작과 <자화상>이 그것들이다. 스튜디오 방문자들을 일정한 그리드로 열 지어 서게 하여 찍은 군상 사진 <직립 연출사진> 시리즈는 스튜디오 안팎에서 일정하게 그리드를 형성한 채 서서 말없이 모두 어딘가 한 지점을 응시하고 있다. 그 중 하나엔 작가 서용선도 그들 군상의 일원이 되어 서서 뭔가를 보고 있다. 한편, <자화상>은 러닝셔츠차림으로 무뚝뚝한 표정으로 비껴서 어딘가 빛이 차단된 채 홀로 서 관람자를 응시하고 있다. 어떤 인물상이든 관람자들의 시선이나 타자와의 정서적 통로는 아예 관심 밖인 듯하다. 군상들은 그렇다 쳐도 자신의 자화상마저도 그 무덤덤하기가 외국의 어떤 도시에서 만난 낯선 익명의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선과 다를 바 없다. 그래서 외계인을 대하듯이 인간에 대한 어떠한 정서적 반응도 인간이란 무엇인가하는 의문에 대한 가치판단도 중지된 듯하다. 그렇다면 무언지 분명치는 않으나 여태껏 자신이 그려 온 도시 사람들이나 일련의 자화상들 같은 인간을 향했던 자신의 시선에 대한 코멘트가 아니고 무어겠는가? 그 표현적이고 투박한 모습들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자신이 생산해 온 이미지들을 가로지르던 그 차갑고 냉랭한 중립성의 감각을 요약이라도 해내는 듯하다. 그래서 마치 최근 도시 그리기에서 일어난 변화들이 이 사진작업들로 또렷하게 개념적으로 정리될 듯싶다.

II.

지난 2009년 국립현대미술관 <올해의 작가> 초대전으로 그동안의 작업들을 회고전적 성격으로 정리하고 난 뒤, 서용선의 활동의 크기나 넓이는 말 그대로 중형무진에 가까운 것이었다. 여러 뮤지엄들이 앞 다투어 초대전들을 열었다. 2015년의 금호미술관 전시 말고도 그의 초대전은 한국전쟁 정전 60주년 기념으로 고려대학교박물관이 개최한 <기억.재현, 서용선과 6.25>(2013. 6. 25 - 8. 25)전, 파주아트센터 화이트블록의 <역사적 상상_서용선의 단종실록>(2014. 5. 2 - 7. 27), 강릉시립미술관과 한국미학예술학회가 공동 주최한 <아르스 악티바>전 제3부 <서용선_풍경과 문화적 기억>(2014. 5. 31 - 7. 1)전, 제26회 이중섭미술상 수상기념전으로 조선일보미술관이 주최한 <서용선의 '신화', 또 하나의 장소>(2014. 11. 6 - 11. 16)전, 김종영미술관 <色과 空 - 서용선>전(2016, 10. 7 - 11. 20)등으로 줄을 이었다. 갤러리 전시로는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 외국 화랑들에서 손가락으로 꼽기 어려울 정도로 여러 차례 열렸다.

이번 갤러리신라 <서용선-도시를 향한 현상학적 시선>전은 그 끝에서 다시 열리는 도시 사람들 그림전이다. 그에게 도시를 그리는 일은 왜 이렇듯이 지칠 줄 모르고 지속되는 것일까? 마치 블랙홀같이 예술계를 삼킬 듯이 국제비엔날레들이 여기저기 난무하는 가운데,, 세련되고(?), 진보적인(?) '현대미술'의 퍼레이드를 벌이는 가운데서 있으면, 혹시 이러한 작업은 한물간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없지 않다. 미국연방금리에 따라 세계시장이 출렁거리듯이 미국 미술담론들에 의해 지배되다시피 해 온 한국 현대화단에서 보면 더욱 시대착오적으로 보이기도 한다. 그렇지만 바로 그런 점에서 자신의 삶 체험과 예술 사이를 철두철미하게 조응시켜가는 서용선은 독보적이다. 그래서 이 시대를 대표하는 흔치 않은 진정성을 지닌 '삶의 예술가'임을 역설해 주기 때문이다.

알다시피 그는 6.25 한국전쟁의 포 소리가 채 멎지 않았을 때 서울의 성북 돈암동에서 태어나 전쟁의 상흔들로 뒤범벅이 되었던 미아리 정릉 같은 서울 번두리에서 성장기를 거쳤다. 전쟁이 멈추고 서울이 급격하게 산업화해 가고 도시화 하는 그 모든 과정을 겪으며 폐허와 유토피아로서 도시 사이를 가로지르며 살았다. 그런 점에서 그가 그리는 그림이 정작 그 도시적 삶이 그것을 통해 우리가 꿈꾸었던 유토피즘 만큼 과연 자명한가 하는 질문에 마주해 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급변해온 그렇지만 환원불가능할지도 모를 이 시대 지구촌 도처의 도시들과 꿈꾸었던 삶의 등지 사이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그 감당할 수 없는 균열들이다.

그런데 여기서 새삼스럽게 싯다르타 연작의 기억이 되살아나는 것은 왜일까? 서울, 파리, 베를린, 뉴욕, 워싱턴

같은 대도시들과는 달리 도시들로부터 격절된 일본 와카야마현 코야산(高野山)에 위치한 일본 선종의 성지로 알려진 한 사찰에 머물며 감당하기 어려운 덩치의 큰 통나무들로 조각한 작품들 말이다. 그는 그 여러 점의 <싯다르타> 연작들을 일본 현지에서 이어 지난 2016년 말 김종영미술관의 《色과 空 - 서용선》전에 선보였다.

실은 서용선이 붓대를 마주한 것도 조각에 손을 댄 것이 이번이 처음 있는 일은 아니다. 그는 이미 30여 년 전 붓대를 마주한 바 있다. 그것도 자신이 외부세계와 행복한 친화감을 느낄 때가 아니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개인사적으로 절망적 사건, 불가항력적인 일 앞에서였다. 이번에 출품되는 1986년 작 <붓다>(79.5x79.5cm, 테라코타, 1986, 소성, 2016)는 그것을 생생하게 증거해 주고 있다. 이로부터 벌써 30여년이 훌쩍 흘렀다. 붓다란 어떤 분인가? 붓다를 향해 그때 던졌던 질문과 화가 서용선이 지금 던지는 질문은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달라졌는가? 분명한 것은 이제 그가 향해가는 세계가 여러 <붓다>나 <보살>들, <번뇌>(280x240cm), 캔버스에 아크릴 칼라, 2015) 같이 '마음' 혹은 생각(念) 등 불교의 키워드 같은 개념적인 작업들에서도 확인되듯이 그가 자기를 드러내어 표출하는 일만큼이나 그것을 비울만큼 비우고 절제할 만큼 절제하는 일에도 눈길을 던지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그것은 아상(我相), 인상(人相), 중생상(衆生相), 수자상(壽者相)을 다듬는 일만큼, 무수한 타자들의 세계를 향하여 진정 붓다는 누구인가를 묻는 작업에 다름 아니다.

이번 도시사람들 작업이 불가의 수행 과정과 그다지 다를 게 없었던 싯다르타 연작 작업 과정을 겪고 난 뒤 일어난 일임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청년기로 돌아가 보건대, 그는 그리 표출적인 태도를 지닌 작가는 아니었다. 오히려 한때 한동안 후설(E. Husserl, 1859~1938)의 현상학에 매료되어 '판단중지', '현상학적 환원' 같은 개념들에 몰두하던 기억이 새롭다. 그의 출세작이나 다를 바 없는 도시 사람들이나 소나무 연작들의 실마리도 바로 그 현상학적 방법과 무관하지 않다. 그래서 이제 이순(耳順)의 나이에 들어서 서용선이 이번 전시에서 늘 당혹케 하는 이 시대 도시 풍경들을 괄호 치듯이 판단을 중지해가며 보여주는 '도시를 향한 현상학적 시선'은 멀리 한 바퀴를 돌아 와 귀환하여 새 출발하고 있다는 느낌마저 같게 한다. 그렇다면 원숙미를 더해가던 그의 예술에 다시 청춘의 새봄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일까? 궁금한 일이 한둘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 분명한 것은 인간의 존엄성이 무엇인지를 묻는 일 외에 자신에게 다른 길이 있겠냐고 자문자답하는 그의 끊임없는 시지프스적 태도다. 싯다르타 이후!